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 긴장 평화를 위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자!

트럼프가 11월 7~8일 한국에 온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만에 국회 연설까지 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여기서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최고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도 한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인 10월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에서 아베의 집권 여당은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아베는 이 승리를 발판삼아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 한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일본에 방문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방한한 트럼프가 한반도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다. 요컨대, 트럼프가 방한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자신의 1순위 경쟁자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에 좋은 명분이 되는 북한을 이용해 자신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패권 전략과 강대국들의 군사 경쟁은 동아시아를 더욱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공격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하지 않았던 말이다.

트럼프가 위험한 이유는 말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동해에서 서해를 가로지르며 폭격 훈련을 했고,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 등이 동원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진행됐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기는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엔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시키기도 했다. 트럼프는 올해 4월 13일 아프가니스탄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모압’을 투하했는데, 이 폭탄은 핵무기를 제외하

면 가장 파괴력이 큰 폭탄이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을 흘려둘 수 없는 것이다.

평화 운동

물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촉즉발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돌발적 변수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미국이 패권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호전적인 트럼프의 방한에 반대하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운동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를 초청하고 국회 연설까지 요청했다. 반면, 소성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

하며 사드를 배치했고 GDP 대비 군사비를 대폭 증강하려 한다. 이처럼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를 강대국 간 갈등 속으로 밀어 넣어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힘은 아래로부터 저항에 있다. 군사 긴장 고조로 진정으로 고통 받는 평범한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이런 패권 경쟁에 반대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 세계 민중의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미 FTA 재협상도 밀어붙이며 경제적 패권 정책도 강요하고 있다.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성소수자 차별의 국제적 아이콘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낙태 지원을 하는 국제적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미국의 성소수자 화장실 권리 지침을 폐기했으며, 친미 정권인 이집트 군사정권의 성소수자 체포와 구속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DACA) 폐기를 선언해 미국의 이주민 미성년자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국민이 아니다. 호전적 제국주의자이며, 차별을 퍼뜨리는 혐오 세력이다. 트럼프 방한에 함께 반대하자.

미국의 대북 공세에 맞서 대학생들이 평화 운동을 건설하자

지난 몇 달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라는 식의 공평무사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곤 한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호전적 언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나 반제국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행위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원인이기 보다는 결과로 봐야 한다.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과 해마다 북한 GDP보다 더 많은 돈을 군비에 쏟아붓는 한국 등에 현재 상황의 진정한 책임이 있다. 군사력은 경제력에 기초할 수 밖에 없는데 2016년 기준 한국의 GDP는 북한의 45배이다. 북한의 GDP는 대전시 하나의 지역총생산(GRDP)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의 GDP는 한국의 13배 규모다. 누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한반도는 '첨단 무기의 전시장'이 돼 버렸다. 미국은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을 동원해, 언제든 북한을 핵폭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원해 온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소성리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였고, 군비를 대폭 증강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경쟁자인 중국에 자신의 힘과 패권을 똑똑히 각인시키고 싶어 한다.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똑똑히 봤듯,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며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전쟁을 벌여 왔다.

이런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핵심 원인이다. 미국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라는 식의 공평무사한 양비론적 태도는 진정한 문제를 짚지 못하는 것이다. 양비론적 태도로는 제국주의에 맞선 평화 운동을 제대로 건설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의 전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아래로부터 투쟁이었다.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것은 “빵, 평화 토지”를 요구했던 러시아 혁명의 승리였고, 1960~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것도 베트남 인민의

저항과 서구의 반전운동이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과 문재인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평화 운동을 건설해 가야 한다. 정부 간의 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운동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진정한 동력이다.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을 아래로부터 한반도 평화 운동 건설의 계기로 삼자!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반전·평화, 노동자 투쟁, 여성·소수자 억압 등 이 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하며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문의 : 010-5443-2395 (문자도 환영)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

2017년 9월 19일 UN총회 연설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

2017년 8월 8일 북한을 향해

“한국은 미쳤다.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12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초청 행사에서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2015년 12월 7일

트럼프 경선 캠프 성명

“자기 남편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을 만족시킬 생각인가?”

2015년 4월 16일

힐러리 클린턴에게

“넌 역겹다”

2011년 트럼프의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벅이

모유 유축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가며



함께
참가합시다!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11월 4일(토) 4시 / 장소: 광화문 일대

트럼프 방한 반대 집중행동

11월 7일(화)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오전 11시부터 / 장소: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

트럼프 국회 연설 저지 행동

11월 8일(수) 오전 9시 / 장소: 국회 앞